

적응기제

손영실경일대 사진영상학부 교수

이번 작업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상처와 고립감을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삶의 조건을 투영하고 이를 사유해보게 한다. 작가는 사진 매체를 활용한 참신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와 예술적 잠재력을 확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서 보여진 사진 작업들은 한편으로는 현실의 대상을 카메라로 충실하게 재현해내며 사진적 행위의 결과인 사진과 대상의 지표적 관계에 기초한 기록적 접근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성 및 현실 인식에서의 자각 그리고 주관적 감성영역으로의 확장된 사고를 통해 현실에 기원을 갖는 사진적 기호들을 또 다른 층위의 코드로 재창조해냄을 인지하게 한다.

작가가 작업을 시각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방문한 동물원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동물의 눈에 눈물이 맺혀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으로부터였다. 이후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본능대로 살 수 없는 동물들의 삶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동물원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하는 동물들을 대면한 가운데, 이 동물들만의 상실감과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를 작업으로 시각화하게 된다.

물론 현재의 작업에서 우리 눈에 확연히 각인되는 것은 동물이지만 이러한 동물들은 한편으로는 인간 군상의 메타포(metaphor)일 수 있다. 사진작가인 베티나 하인즈(Bettina Rheims)가 동물들의 포트레이트를 찍은 사진들과 인간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며 느꼈던 동물과 인간이 유형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동질화되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과 유사한 맥락이 이 작업에서도 발견된다.

작가가 작업의 제목으로 내세운 '적응기제'란 심리학적으로 두렵거나 불쾌한 일 또는 욕구 불만의 상태에 부딪혔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를 뜻하는 용어이다. 사람은 누구나 적응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방어 기제(防禦機制)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물들 역시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본성을 가지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단어는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진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빛바랜 색의 톤이 어렴풋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오래된 물건이 낡으면 색이 변질되듯이,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이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지내왔음을 나타내는 시간의 축적에 관한 은유적 표현이 된다. 또한 작가는 사진 표면의 스크래치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잃은 동물들의 내면적인 상처를 표현하고 있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안에 주체, 대상, 타자, 세상이라는 관계의 틀을 상정하게 한다. 관객의 시선을 외면한 동물들의 슬픈 눈빛들은 이러한 관계망에서 한편으로는 소외되고 고립된 타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이 작업의 형식적인 표현 양태들은 위트킨(Joel-Peter Witkin)의 사진을 떠올리게 한다. 위트킨은 신화나 전설에서 찾은 어떤 모티브를 해체하여 죽음과 육체, 성 등의 주제를 다루며 매우 기괴하고 추한 방식으로 인물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에 대한 사유를 심화시켜낸다. 또한 그는 현상과정에서 일부러 표면이 굵히거나 내면적인 상처들을 스크래치를 통해 형상화하고 여기에 갈색의 색감을 덧붙여내며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 비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 혹은 작가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표출한다.

사실상 이 작업에서 드러나듯이, 동물원은 일종의 사회적 구조 혹은 체계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동물들이 받은 상처는 인간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또한 표면에 드러난 스크래치 자국들은 대상을 마치 박제된 것 같은, 죽음의 이미지의 문턱에 다가가게 하며 사물의 이면을 통찰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는 걸음으로 표상되지 않는 것들, 그 기저의 흐름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이러한 과정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본 전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개념을 정초하고 시각적 언어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을 창출해내는 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후에 사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작가로서의 단초를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